

독일서 공공자금 지원기업 선정 초기자금 25억 포함 150억 확보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재생의학·ATMP 혁신 인정받아
독일 넘어 유럽시장 진출 '청신호'

테슬라·바이오엔텍·큐어백 등
獨 공적자금으로 시장 자리매김

오가노이드(Organoid)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독일 재생 의학 및 첨단치료의약품(ATMP) 기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2년간 25억원 규모 초기자금을 포함, 향후 150억원 가량의 독일 공공자금을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장 재생치료제 '아톰(ATORM)-C'에 대한 ATMP 인증을 받은 바 있다. ATMP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조직공학 제품을 포함, 기존 의약품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어 이번엔 독일 공공자금 지원 기업으로도 선정되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달 1일부터 향후 2년에 걸쳐 공공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올해 독일 현지 기업인 람다 바이오로지스(Lambda Biologics GmbH)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독일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회사측은 이번 자금 지원은 세계 시장 입지 구축은 물론, 재생 의학 및 ATMP 개발 분야 미래 가치를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부터), 람다 바이오로지스 대표 안드레 거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상무.

앞서 테슬라(Tesla), 바이오엔텍(BioNTECH), 큐어백(CureVac) 등이 독일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을 인정받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매김한 바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ATP P 규제 체계를 갖춘 독일은 아톰-C와 같은 첨단치료제를 발전시키고 상용화하기 이상적인 곳으로 꼽힌다.

독일의 ATMP에 대한 지원과 규제 환경은 바이오테크 기업 성장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일례로, 병원 면제(일반 절차보다 환자에게 빠르게 도달하는 제도) 경로가 있어 치료법 적용이 용이하다. 또한 학계, 산업계, 규제 기관 간 협력으로 상당한 자원을 제공해 유럽 내 큰 규모의 ATMP 임상시험을 주도한다.

독일은 병원 면제 경로로 2022년 4월 기준, 9개 ATMP가 적용되었으며 타 유럽 국가에 비해 빠른 상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ATMP에 대한 빠른 접근성과 발달된 의료 인프라 등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재생 치료법 기술 발전에 좋은 토양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정을 주도한 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기술 개발 총괄이사(상무)는 "이번 공공 자금 지원은 자사의 재생 의학 및 ATMP 혁신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독일의 국가적 차원 중개 연구 지원으로 실험실 연구와 환자 치료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럽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의 공공 자금 지원은 초기 단계 이후에도 150억원 이상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영역을 확장해 치료법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국제유가·환율 하락에 수입물가 2% ↓

한은, 9월 수출입물가지수
공산품 2.3%, 나프타 3.8% 하락

지난달 수입물가가 전월보다 2% 하락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가 소폭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5.19로 전월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8월 3.5% 감소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수입물가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8월 77.60달러에서 9월 73.52달러로 5.3%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8월 평균 1354.15원에서 9월 1334.82원으로 1.4% 떨어졌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고 추가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

한 영향이다. 통상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 하락→생산자물가 하락→소비자물가 하락의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전월대비 2.3%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 중에서는 나프타가 3.8%, 화학제품 중에서는 메틸에틸케톤이 5.4%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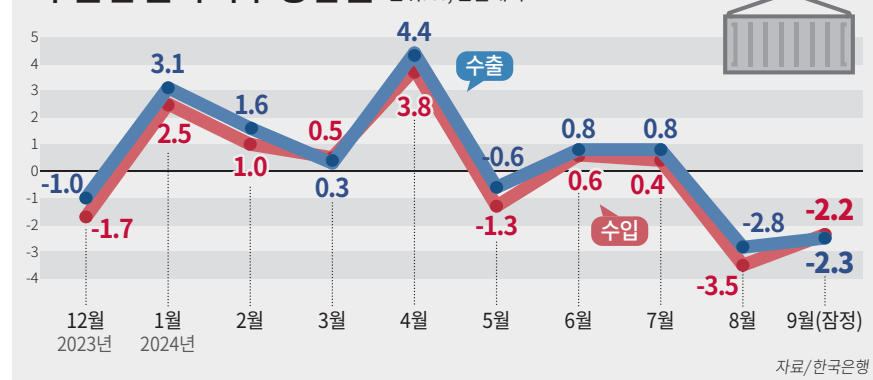
공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도 전월대비 3.4% 하락했다. 광산물 중 원유 가격은 전월대비 6.6%, 망간광석은 14.2% 하락했다.

수입물가 하락분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우려 리스크가 지속되며 국제유가도 하락하고 있어 향후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27.09로 한달 전보다 2.3%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올랐다. 전년동월기준으로는 9개월 연속 상승세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출입 물가지수 증감률



쌀 20만t 격리... 예측치 보다 7만t 많아

농식품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공공비축미 36만t 포함 56만t 매입
중간정산금 3만원→4만원 상향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량 예측치 12만8000톤(t)보다 7만t 이상 많은 총 20만t 규모의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 또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간정산금을 기존 40kg 포대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벼멸구·수발아 등의 병충해 피해를 입은 물량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2024년 도산 쌀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지난 9월 10일 발표한 사전 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 18일 충남 당진을 찾아 2024년산 벼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돼 온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올려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

지한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매입자금 3조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올해 벼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30~11.29) 동안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

삼성SDI, 전기차·ESS '투트랙 전략' 추진

>> 1면 '배터리업계, 美...서 계속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ESS,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수익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전기차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ESS 사업 비중을 높일 것이라 밝혔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BaaS·에너지생애주기서비스(EaaS)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에너지 순환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삼성SDI도 전기차와 ESS를 동시에 겨냥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향 수요 대응을 위해 제너럴모

터스(GM)와 손잡고 미국 내 35억달러 투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에 나서는 한편 SBB(삼성배터리박스) 1.5를 공개해 ESS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SBB 1.5는 삼성SDI의 두 번째 SBB라인업으로 북미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온도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며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